

# 비타민하우스, 무화학부형제 비타민 '파이토 비타민'

20년 연구 개발로 탄생한 무화학 공법 자연주의 비타민



식품 대부분에는 제조나 가공, 조리, 보존 또는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의 용도로 첨가물이 들어있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600여 가지 식품첨가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첨가물을 먹기 쉽게 하거나 빛깔과 형태를 갖추도록 더 첨가하는 물질로 부형제를 쓴다. 화학 성분을 합성해 만든 '화학적 합성 부형제'가 대부분이다. 합성 부형제는 제품을 단시간에 대량 생산할 때 생산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제품에 더 좋은 향과 맛, 또는 색을 낼 때도 필요하다.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적정량을 사용하면 인체에 무해하지만, 영양 성분으로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주로 쓰는 합성 부형제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와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CMC-Ca) 등이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는 정제의 경도를 높이고, 표면에 매끄러운 코팅막을 씌우는 역할을 한다. 이 산화규소는 원료가 습기를 빨아들어 굳거나 성상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한다.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은 양을 늘려 정제를 빠르게 생산하도록 하고,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은 체내에서 정제가 잘 녹을 수 있도록 돕는다. 20여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해온 전문기업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오랜 연구 끝에 화학적 합성 부형제들을 모두 배제한 자연주의 비타민 브랜드 '파이토 비타민'을 새로 만들어 내었다. 파이토 비타민은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든 부형제가 아니라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분말과 건조효모 등을 사용한다. 섭취에 용이한 정제 형태로 생산해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파이토 비타민은 '파이토 멀티비타민 포 우먼', '파이토



멀티비타민 포 맨' 등 종합비타민에다 '파이토 멀티비타민 락토 철분', '파이토 호모비타민D', '파이토 칼맥', '파이토 마그네슘B6', '파이토 B복합체' 등 모두 7종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합성코팅제를 사용하지 않아 약간의 가루 날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착색료를 쓰지 않아 원료 고유의 색깔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합성향료도 없어 인공 향이 아닌 원료 자체의 향을 느낄 수 있다. 또 국제인증 전문기관 SGS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 FSSC 22000을 획득한 GMP(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시설에서 제조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파이토 브랜드에 대해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들었다"면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정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안심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비타민하우스의 무화학부형제 비타민 '파이토 비타민'은 VH몰, GS홈쇼핑, CJ홈쇼핑 등의 홈쇼핑사와 11번가, 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는 ☎ 1588-8529 또는 www.vhmall.net로 하면 된다. 📍